

Research

Blue 16

1

컬러오브소울 Colour of Soul

글·사진 김선애 도예가

‘색은 영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힘이다.’ - 바실리 칸딘스카
Color is a power which directly influences the soul. -Wassily Kandinsky-

BLUE시리즈 에필로그

본지에 기나긴 시리즈를 시작한 이유는 개인적인 호기심으로부터 출발했다. 작가로서 도자기에 색을 사용하면서 색채 연구를 하는 것이 당연했고, 그만큼 색에 대한 호기심과 내가 색상을 작품에 사용했을 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일지에 대한 걱정 아닌 걱정도 있었다.

도대체 파란색은 길고 긴 역사와 여정 가운데 어떤 매력을 가졌길래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일까. 어떠한 울림으로, 죽어있는 표면의 그림이 아니라 일상의 빛으로 동시대를 살아가게 되었는지 궁금했다. 사실, 본 연재에서는 리서치로 분류되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리서치 에세이’가 보다 적합한 표현인 것 같다. 연구조사보다는 조금은 덜 무겁게 다가가고

- 1 그물무늬접시, 일본 에도 19세기
이마리, 도쿄국립박물관소장
- 2 산의 형태로 조각된
청금석(라피스 라줄리), 청나라
시대 (1622-1911 C. E),
대만고궁박물관

싶었다.

앞서 언급했지만, 나의 리서치는 칸딘스키로부터 시작되었다. 색에 생명이 깃들여있다고 믿었던 칸딘스키, 요하네스 이텐의 색채 조화론과 그의 삶, 피테의 색채론에 관심이 생겼다. 동시에 색의 또 다른 이름인 빛에 대해 궁금하기도 했다. 색상에 대한 개인 리서치를 진행하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색채론에 관해 무지하기만 하다.

수많은 색상 중 블루를 선택한 이유는 첫째, 도자기에서 백자의 하얀색 다음으로 가장 많이 접하는 색이라고 생각했고 둘째, 흰색으로 빛의 색 중 하나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블루라는 색상이 내게 다가왔다는 표현이 맞다고 할 수 있다.

BLUE의 소울

이번 에필로그는 그동안 시리즈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

이다. 지난 15편의 글들은 모두 이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작성했기 때문에 마지막 편에 소개하고자 한다.

빛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데카르트 등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빛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 갈릴레오 시대 이전 사람들은 빛은 천상에서 땅에 내려와 어둠을 밝혀주는 성스러운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빛과 신을 동일시 했다. 갈릴레오 이후에 사람들은 과학의 시선으로 빛의 본질을 찾으려 노력했다. 지금은 어둠이 단지 빛의 부재라는 것을 알지만, 17세기에는 어둠과 빛의 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었다. 뉴턴 시대의 빛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흰색 빛이라 여겼다. 색은 흰색 빛에 어둠이 섞여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지만, 르네상스 화가들은 흰색에 다른 색을 섞어도 어둠이 생기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2



3 유리잔, 도기저그, 파이프가 그려진 정물화, Jan Jansz. van de Velde(III) 1620 - 1662 네덜란드, 1651, 리익스뮤지엄 소장품

4 Jacques Kaufmann 「A Secret Chamber for Peace」 Brik, Concrete, Blue Paint, 2007, Yिंगge Ceramics Museum Ceramic Park

색의 채도만 낮아질 뿐이었다.

뉴턴 이후에도 맥스웰, 어니스트 러더퍼드, 막스 플랑크, 닐스 보어,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등 우리가 물리 시간에 들어봤을법한 많은 물리학자가 빛에 대해 연구했다. 과학자 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칸딘스키, 요하네스 이튼, 먼셀, 괴테 등 수많은 예술가가 그들의 생각을 정리했다. 과학, 수학, 예술은 표현하는 언어만 다를 뿐 모두 빛을 향해있다.

RGB

언뜻 생각하면 도예가라면 '빛의 삼원색_{RGB}' 보다는 '색의 삼원색_{CMYK}'를 연구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다. 하지만, 나는 도자기의 색을 빛으로 보고자 한다. 도자기 표면의 색을 캔버스의 물감처럼 쌓아 올려 표현했건, 유약으로 담갔던, 모두 가마에서 나오면 유리질화되고 바디와 한 몸이 된다. 우리가 이해하는 CMYK와는 조금 다르다. 모든 색을 빛으로 이해하면 밝은 색, 어두운 색은 없다. 모두 빛이다. 그리고 그 빛은 작가의 영혼을 울리고 다른 사람에게 '빠르게' 전달되어 또 다른 인간의 영혼에 반응한다.

'색의 조화는 오직 인간의 영혼에 반응하여 움직이게 하는 법칙에 근거한다는 것이 명백하다'

It is evident that colour harmony can rest only on the principle of the corresponding vibration of the human soul.
칸딘스키 『예술에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Red

"빨간색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한계가 없고 특정한 따뜻한 색이다. 그것은 생기에 차 있고 활동적이며 동요하는 색으로 내적으로 작용하지만, 시방으로 자기 힘을 소모하는 노란색이 지닌 경솔한 성격은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빨강은 모든 에너지와 강렬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목적을 의식한 무한한 힘을 강력히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거의 외부로 향하지 않고 주로 자기 내부에서 분출하고 작용하는 빨강은 소위 남성적으로 성숙한 색이다..."

Green

"완전한 초록색은 존재하는 모든 색 중에서 가장 평온한 색이다. 그것은 어느 쪽을 향해서도 운동하지 않으며, 기쁨과 슬픔, 정열 등의 여운을 만들지 않으며, 그 무엇을 요구한다든가 어디로 불러내지도 않는다."

Blue

"...파랑은 예민하기 어렵고 강렬하게 상승할 수도 없다"

White

"흰색은 물질적인 성질이나 실체로서 모든 색이 사라진 세계의 상징과 같다."
"...흰색도 역시 커다란 침묵으로 우리의 심성에 작용한다. 흰색은 죽은 것이 아닌, 가능성으로 차 있는 침묵인 것이다. 이는 시작하기 전의 무_무요, 태어나기 전의 무_무인 것이다. 지구는 빙하기시대에 아마 그런 식으로 음함을 냈을 것이다."¹

차원

빛을 따라가다 보니 차원과 공간이 보인다. 공간은 형태의 언어를 만든다. 여기서 내가 흥미로웠던 것은 원과 숨은 차원이다.

물레로 인한 필연적인 형태도 있지만, 도자기 형태 중에 원이라는 기하학 형태의 요소를 많이 품고 있어서 더 흥미롭다. 원은 완벽과 무한함을 상징한다. 칸딘스키에 따르면 원이란 다음과 같다.

‘가장 큰 반대측끼리의 통합이다. 동심원과 편심원을 단일 형태와 평형 상태로 결합한다. 세 가지 기본 형식 중 가장 명확하게 4 차원을 가리킨다’

...is the synthesis of the greatest oppositions. It combines the concentric and the eccentric in a single form and in equilibrium. Of the three primary forms, it points most clearly to the fourth dimension. ²

이러한 원형의 도자기는 위에서 내려다보면 2D이지만, 사실은 3D이다. 우리가 표면디자인이라고 하는 것도 엄연히 따지면 잘못된 말이다. 하지만, 동시에 맞

¹ 칸딘스키의 색은 빛의 색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책 『예술에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Concerning the Spiritual in Art)』에서 발췌한 색에 대한 이론 중 부분을 소개한다.

² Guggenheim (2019), Several Circles (Einige Kreise), Accessed 20 Feb, 2019, <https://www.guggenheim.org/artwork/1992>

는 말이기도 하다. 어디서 바라보는가에 따라 달리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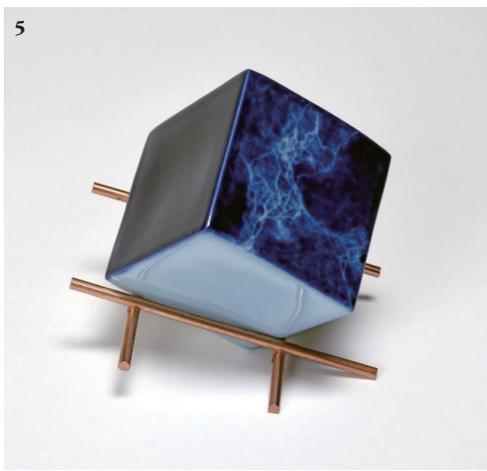
물리학에 끈 이론(String theory)이라는 것이 있다. 우주가 3차원 공간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발상은 바로 끈 이론에서 나온 것이다. 차원을 많이 보려면 가까이서 보면 되는데, 숨겨진 차원을 보려면 가까이 가면 된다. 이것은 마치 정원에 있는 호스 위에 개미와 같다. 멀리서 볼 때는 호스는 그냥 선이다. 점점 가까이 가면 두께도 있고 긴 원통처럼 보이는 3차원의 형태이다. 여기에 개미가 기어 다닌다고 생각해보자. 그 개미는 호스 속 구멍으로도 갈 수 있다. 숨은 차원이다. 이러한 물리학 이론은 필자가 이해하기에 피상적이지만, 도자 예술을 함에서도 색과 함께 이어지는 차원과 그에 따른 공간에 대한 고민은 우리에게 시각적인 형태의 언어를 다루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믿는다.

움직임

색으로 시작된 물음은 이제 움직임까지 이르렀다. 도자기, 3D로 이루어진 도자 조형물을 이야기 하며 움직임(Movement)을 이야기하는 것에 의아해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바꾸면 에너지 흐름도 바뀐다’는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것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에너지가 있고, 각기 고유의 주파수가 존재하며 모든 에너지





는 생각의 산물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색은 고유의 주 파수가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 흐름, 즉 움직임은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칸딘스키 또한 예술에서의 운동,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예술은 정신적 생활에 속해 있으며, 또 그 생활에서도 예술은 가장 강력한 대리자 중의 하나로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적 생활은 복잡한, 그렇지만 명료하고 단순화된 운동으로써 인식이다. 즉, 인간의 심성을 순화 발전시키며 눈에 보이지 않는 잠시 외면적으로 정지한 듯하지만 연속적이며 중단되지 않은 운동이다.”

독일 바우하우스의 기초교육을 담당했던 요하네스 이텐 Johannes Itten이라는 화가이자 교육자도 있다. 우리가 교육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먼셀의 색상환이 더 익숙하지만, 이텐도 색채 조화론으로 유명하다. 그의 색 이론 말고도 유명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가 채식주의자였으며 조로아스터교의 하나인 마스다스난 Mazdaznan을 신봉했다는 것이다. 승려처럼 머리를 밀고 자기 내면의 이해와 직관력을 높이기 위해 실제로 명상을 하고 철저한 식단 조절을 하며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체조를 시켰다고 한다. 이렇게 그는, 기초수업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새로운 교육방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하는데, 체험을 통해서 자연의 재료에 눈뜨게 하고, 놀이 같은 수업을 하며 학생들의 창의성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리게 했다 한다. 그는 바우하우스가 나치에 의해 문을 닫고 난 이후에는 취리히 시립 공예학교 교장으로

조형 교육을 담당했다. 언뜻 보면 움직임과 조형, 색은 정말 다른 것 같지만, 20세기 초, 이미 바우하우스에서는 이미 기초교육으로 사용하고 있던 것이었다.

Emmanuel Boos
 현재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하고 최고로 손꼽히는 컨템포러리 도예작가. 현재 세브르Sèvres 자기 박물관에서 초대받아 2016년부터 그곳에서 작업 중이다. 작가는 닫혀있는 형태의 큐브, 조각돌, 박스, 책 등 추상적이고 신비로운 형태를 기본으로 색과 함께 작업한다. 때로는 불완전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기도 한다.
 작가는 유약은 ‘색’이나 ‘물감’과는 다르다고 말한다. 원래는 각종 미네랄을 섞어 만든 파우더 형태였다가 도자기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모른 채 입힌다. 이러한 점에서 그가 연구하고 있는 유약, 에나멜 컬러 팔레트는 색 이상의 것을 담고 있다. 다른 측면에서는 필자가 연구하고 있는 파랑의 해석과 맞닿아 있기도 하다. 작가의 작업은 유약실험이 다가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공예도 아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친밀감이다. 감정, 관능이고 시다. 보는 이로 하여금 유약에 대한 미적, 민감, 관능적이고 정서적인 사색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의 박사논문 『The Poetics of Enamel, Perception of the Depth on an Enamelled Ceramic Surface』을 살펴보면 7년 분량의 연구 실험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3월 말부터 4월까지, 프랑스 세브르 박물관에서 개인전이 열리고 있는데, 파란 큐브의 설치작품을 새롭게 만날 수 있다.
 H. www.emmanuelboos.info

5 Emmanuel Boos 「Les messagers de la poésie frénétiques (The messengers of frenetical poetry)」 cube: 6×6×6cm | Sèvres Porcelain, Sèvres Blue glazes (Bleus de Sèvres), Steel, copper coating and varnish | 2018 | Photograph: Gérard Jonca/Sèvres Cité de la Céramique
 6 Emmanuel Boos 「Sèvres Cubes」 each cube: 6×6×6cm | Sèvres Bone China, Sèvres glazes, | 2018 | Photograph: Gérard Jonca/Sèvres Cité de la Céramique

마치며

블루 시리즈를 기획했을 때부터 마지막 편을 컨템포러리 파랑으로 염두에 두었다. 그러나, 연재를 이어오면서 컨템포러리를 다루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느꼈다. 필자의 내공도 부족하고 연구해야 할 부분이 많아, 아쉽지만 이번 연재는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한다. 시대를 넘어서 예술의 장르 중 현재는 음악이 가장 빠른 시간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장르가 아닐까한다. 스토리가 있는 영화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회화, 도자기를 포함한 시각예술도 감상하는 사람에게 벅차오르는 감동과 눈물을 흘리는 것을 쉽게 보지 못했다. 현재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예술이어서 각 예술이 가진 목적이 다르다 하더라도, 시각예술 안에서 예술가가 느낀 감정을 관람객에게 감염시킬 수 있을지 궁금하다. 또, 도자 예술도 어떻게 하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된다. 그 과정의 예로, 작가가 색을 선택할 때 어떠한 울림이 감정에 나와 그 색을 선택

하고, 어떠한 색의 조합이 진폭을 넓히고 좁혀 내 작품에서 예술에서 하모니를 만들어 내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도자기 형태와 맞물려서, 어떤 공간에서, 어떤 언어와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는지도 흥미로운 연구주제이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그리고 독자들에게 묻고 싶다. 칸딘스키에게 색채는 인간적이며 역동적인 정신적 삶의 표현이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도자기의 파란색은 어떠한 울림인가.

필자 김선애는 홍익대학교에서 도예유리학과를 졸업하고, 영국왕립예술대학(Royal College of Art)에서 MA와 동 대학원에서 MPhil을 받았다. 현재는 Studio Manifold의 공동설립자로 런던과 서울을 오가며 도예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도자기가 가진 잠재성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새로운 시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참고자료

빛의 물리학, EBS 다큐프라임(TV), 2013
칸딘스키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권영필 옮김), 열화당 (2015)
Kandinsky W, Concerning the Spiritual in Art (2002), Retrieved from <http://www.gutenberg.org/cache/epub/5321/pg5321-images.html>

- 7 Emmanuel Boos 「La grille (The grid)」 each cube: 6x6x6cm | Sèvres porcelains, Sèvres glazes, steel, copper coating and varnish | 2018 | Photograph: Gérard Jonca/Sèvres Cité de la Céramique
- 8 Emmanuel Boos 「Monolithe de Sèvres」 36x30x8cm | Sèvres bone china and glaze | 2017 | Photograph: the artist
- 9 Emmanuel Boos 「Monolithe de Sèvres」 36x30x8cm | Sèvres bone china and glaze | 2017 | Photograph: the artist

